

섬유예술에 있어서 표현소재에 관한 연구

신 재 희

동덕여자대학교 생활미술과 연구조교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ABSTRACT

논문개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연속되어 온 자기표현에 관한 욕구는 시대에 따라 독특한 표현양식인 예술작품을 낳게 하였다.

예술을 자기표현의 결과라고 볼 때, 모호한 장르개념과 재료의 복합성은 창작과정에 있어서 상상력의 비약(飛躍)과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더욱이 예술가의 본질로서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개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인 인습적 사고에서 해방시킨다.

종합예술을 추구하는 20세기의 섬유예술은 과학의 혜택으로 양산되는 재료와 개인의 지적 洞察力(통찰력), 예민한 감성과 더불어 정선된 매체를 합리적으로 도입한다.

이러한 기반아래 섬유예술은 현대미술의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 해오면서 조형예술의 새로운 분야로 확대, 발전해 가고 있으며, 특히 독특하고 다양한 소재의 선택에 의한 풍부한 표현가능성으로 무한한 미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 현대 미술 속에서 하나의 창조분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더욱이 현대의 미술방향이 과학 기술의 발달과 조형개념의 다변화로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지향하고 있음에 따라 섬유재료의 폭은 점차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섬유예술의 일반적 개념 검토에 이어 현대 섬유미술의 특성과 표현양식을 섬유예술의 발전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작품제작에 사용되는 여러 소재들을 조사 분석하여 앞으로의 섬유예술에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표현소재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ABSTRACT

The continuous desire for self-expression from the birth of human history created art works of unique expressive mod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Just as art is concluded as a result of self-expression, the ambiguous concept of genre and composite materials produce imaginary jump and endeavor in the process of creation. Further, the expressive freedom considered as an essence of an artist is liberates the traditionally long-established thought based on a person's individuality and creative power.

Closely selected media as well as mass produced materials benefitted by

science, a person's intellectual insight, and keen sensitivity are introduced to 20th century's textile art, which has searched for a composite art, in a rational manner.

Under this basis, the textile art is connected to the current of modern art to be enlarged and developed into a new field of the formative art. In particular, the infinite aesthetic value can be expressed by the selection of unique and various materials, which result in rich expressive capability, so that it is consolidating its foundation as a creative field in the modern art.

In addition, as the modern art is inclined toward free self-expression ow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and diversification of formative concept, the textile materials are extending its scale increasingly.

Accordingly, this thesis is intended to explain the feature and expressive mode of modern textile art as well as the examination of its general concept and, it is researching to analyze various materials used in producing art works so that it may be helpful to explore the positive ways of future textile art, including the study on expressive materials.

I. 서론

A. 연구목적

현대의 섬유예술은 재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작가 자신의 창조의를, 독특한 재료와 기법, 형식, 주제의 탐구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 경제, 문화, 과학의 눈부신 발달은 새로운 재료의 개발을 촉진시켰고, 여기에 힘입은 오늘날의 작가들은 보다 더 승화된 섬유예술 작품의 심미적 가치와 예술성을 위해 많은 재료를 개발하여 작가 자신의 이미지 전달을 위한 잠재력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재료의 발견은 예술가의 시각과 감정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며, 새로운 시각형식(視覺形式)의 탐구는 그 자체가 예술행위로서 각자의 개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다차원의 형태와 여러 가지 기법들로 표현되어 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섬유예술의 개념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섬유예술 작품에 쓰여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 소재들을 조사 분류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섬유예술이 창작예술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B. 연구방법 및 범위

섬유예술 분야에 있어서 표현소재의 영역은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자하는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그 재료를 어떻게 쓰고 마무리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섬유예술 분야의 독특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에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섬유미술의 기본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섬유미술의 일반적 개념과 발달과정을 알아보고 표현소재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표현소재가 지니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통하여 현대의 섬유예술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새롭게 규명, 앞으로의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II. 본론

A. 섬유예술의 일반적 고찰

1. 섬유예술의 정의와 개념

섬유라는 소재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랜 기간 발전해 왔지만 그것이 예술적 차원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그만큼 오랜 역사적 변천을 거치고 나서이다.

섬유예술이란 동일한 요소의 섬유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구조적 디자인이며, "모든 직물이나 실 또는 섬유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디자인 영역"¹⁾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 섬유예술의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섬유라는 표현소재를 강조하는 용어로는 Art Fabric, Faber Art, Textil Kunst등이 있으며 재료의 부드러운 특성에 따라 Soft Art, Soft Forms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Art Fabric, Art du Tissage 등의 직물공예에 근간을 뒀으므로 생긴 용어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섬유예술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60년대 Pop Art의 작가 올덴버그에 의해 표현되어진 오브제(Object)²⁾를 조각화시켜 다양한 이미지를 Soft Sculpture, Fabric Sculpture, Fiber Sculpture 등의 조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용어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섬유예술계에 질게 대두되고 있다.

위와 같이 재료의 특수성과 표현기법에 의해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는 섬유예술은 어떠한 형식도 제한도 없으며 예술표현이 가능하다면 어떤 재료나 기법도 자유롭게 사용되어 현대예술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위치를 다져가고 있다.

2. 섬유예술의 발달과정

섬유라는 소재로 처음 표현되어진 것은 직물(織物)이라고 볼 수 있다. 직물은 인간이 접하게 된 최초의 예술 가운데 하나로서 고대로부터 공예적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생존을 확보하고, 이차적으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장식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직물공예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며, 당시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 타피스트리이다. 일반적으로 타피스트리는 기원전부터 원시인의 동굴입구를 막는 등의 실용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중세유럽에 귀족저택이나 교회의 벽장식과 의자덮개등 주로 장식을 목적으로 발생되었던 섬유예술의 기원은 르네상스(Renaissance)³⁾이후 유럽에서 획기적 발전을 거듭했으나 회화에 예속되어 화가의 밑그림을 그대로 복제하는 형태가 17, 18세기를 거쳐 19세기까지 성행하였고 모방이 주류를 이루는 어두운 시기를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현대 섬유예술의 모태이자 새로운 방향제시의 길을 열어주는 운동이 1870년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⁴⁾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

1) 모슬리(Mosely)와 존슨(Johnson), 그리고 코웨닝(Koening)의 공저인 Craft Design에서 섬유예술의 횡적, 유기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나온 정의이다.

Mosely, Johnson & Koening(1962), Craft Design(California Walfs Worth Publishing Co), p.20.

2) 오브제(Object) : 물체, 물자체란 뜻으로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사물들은 모두가 그 본래의 용도는 물론 의미까지 박탈당하며, 그 순간 그 물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처 체험하지 못한 물자체를 발견하게 된다.(열화당 미술문고 p. 42)

3) 르네상스(Renaissance) : 프랑스어로 재생의 뜻으로 19세기의 작가들에 의해 유행, 고전의 재생을 의미하는 전반적인 신흥문화운동

4)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 1861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의 문학과 예술을 공부한 후 back-to-Gothic-Simplicity캠페인을 일으켜 타피스트리를 예술과 연관시켜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모리스는 "Art & Craft" 운동을 통해 전통적인 공예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섬유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모리스의 새로운 사상과 실천운동은 각지로 파급되어 1919년 바이마르에서 설립된 바우하우스(Bauhaus)⁵⁾에 이르게 된다.

바우하우스의 설립자인 그로피우스(Gropius)는 조형적 상상력과 기술적인 능력을 조화시키는 까다로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였다. 이러한 영향아래 예술가들은 독립된 분야의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예술의 각 분야의 구획을 대담하게 뛰어넘어 폭넓은 조형실험가로서의 정신을 갖게 되었고 직물디자인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이 발휘되어 현대의 섬유예술로 발전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바우하우스의 직물디자인은 모든 기술적, 미적, 상업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형의 창조라는 기본이념에 따라 "생산을 위한 디자인"⁶⁾에 종속되었지만, 이곳에서 배출된 많은 직조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현대 섬유예술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전통적 의미의 직물디자인은 위사만이 나타나는 형태였으나 그 형식과 재료와 기법에 있어서 전통적 개념에서 크게 변천하여 어떤 원칙이나 제한 없이 예술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모든 재료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창작예술의 한 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전의 평면성을 탈피하여 직물이 하나의 조각작품으로 공간에 걸리고 바닥에 놓여지는 순수 조형예술의 매체로서 섬유를 사용한 새로운 시도는 1962년 스위스의 로잔느(Lausanne)에서 열린 국제 타피스트리 비엔날레⁷⁾를 시작으로 구체화되었다.

60년대의 또하나의 의미있는 전시회는 1963년 뉴욕의 현대 공예 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t Crafts)에서 기획한 "직물조형전(Woven Forms)"으로서 이 전시회는 르노르 타우니(Lenor Towney), 쉘라 히스(Sheila Hicks), 도리안 자카이(Dorian Zachai), 클레어 자이슬러(Claire Zeisler)등 많은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60년대의 작가들이 사용했던 섬유재료로는 금속, 나무, 가죽, 로프와 더불어 사이잘삼과 천연 양모등 다양한 것이었으며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질감의 효과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이들 작품들은 점차 평면에서 이탈하여 입체화되기 시작했는데, 1962년 처음으로 발표된 올덴버그의 소프트 스킵츄어(Soft Sculpture) 즉, 부드러운 조각은 일상적인 오브제를 부드럽게 변형함으로써 특수한 감각효과를 표출하면서 3차원적 공간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재료와 기법의 변혁이 일어나고 표현방법도 3차원적인 확대를 이루게 되면서 70년대에 이르게 된다.

70년대에 가장 주목할만한 양상은 환경을 위한 섬유조형의 발달이라 할 수 있다. 섬유 환경(Textile-Environment)으로 명칭 되는 이 새로운 조형형태는 섬유작품이 3차원

5) 바우하우스(Bauhaus) : 1919년 월터 그로피우스에 의해 바이마르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병합하여 창립된 학교, 건축, 공예, 디자인 등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6) Midred Constantine and Jack Lenor Larsen(1980), The Art Fabric : Mainstream(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 p.24.

7) 스위스의 로잔느 지역 미술박물관(Musee Contonal des Beaux Art)의 관장인 Rene Berger의 주관하에 Jean Lusat에 의해 설립된 세계고대 및 현대 타피스트리 센터(Comite de Centre International de la Tapisserie Ancienne et Moderne : CITAM)의 주최로 열린 비엔날레.

적 조각으로 표출됨으로서 작품들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공간환경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조형적, 성격적 변화와 더불어 재료선택에서도 실크와 섬세하게 잘 짜여진 면의 사용이 증가하고 첨단기술에 의해 개발되는 금속재료와 합성수지, 로프, 알루미늄, 광섬유 등의 신 소재를 도입한 조형적 실험은 섬유소재의 표현적 기능을 한층 증폭시킴은 물론 기술적으로나 조형적인 면에서 다른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B. 현대 섬유예술의 표현재료별 연구

1. 섬유(Fiber)

인류의 역사와 섬유의 발달은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다른 재료들과 함께 꾸준히 다양한 표현세계를 위한 소재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그 생산방법에 따라 천연섬유와 화학섬유로 나눌 수 있다.

천연섬유에는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광물성 섬유가 있으며 화학섬유에는 재생 섬유, 반합성섬유, 합성섬유 등이 있다. 섬유의 종류, 실을 만드는 방법, 굵기, 꼬임, 밀도 등에 의해서 또는 염색이나 가공에 의해서 폭, 무게, 조밀도, 무늬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직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실과 직물이 여러 형태로 재구성되어 작품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가. 천연섬유

ㄱ. 면

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섬유로 무디고 거치며 윤기 없는 질감을 가지고 있어 다분히 서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착색이 용이하므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ㄴ. 마

마는 다양한 굵기와 특유의 색채, 거칠은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튼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섬유재료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ㄷ. 사이잘, 아바카

사이잘(Sisal)은 수선화과의 다년초로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용설란의 일종이다. 섬유작물로서 열대지방에서 재배되는 현재는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적으로 기업재배가 행하여지고 있다.

용설란 섬유(Agave Fiber)인 사이잘은 아바카와 비슷하고 길이가 대개 40-50 inch이며 두꺼운 로우프로 만들어서 사용되기도 한다. 사이잘 특유의 거칠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결로 인하여 작품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르. 견

누에고치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유연한 부드러움으로 촉감이 매우 좋고 훌륭한 광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구성이 좋고 착색이 용이하여 작품표면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료이다.

마. 모

양의 털이나 낙타털, 산 양털, 알파카, 라마 등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부드럽고 보풀이 있으며 강도가 좋아서 작품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나. 화학섬유

ㄱ. 나일론

인조견의 한가지로 석탄 산과 tnth와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들어지며 강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2. 종 이(paper)

종이는 일반적으로 섬유질 물질의 개개의 섬유를 먼저 기계적 작용으로 분리시킨 다음 이를 물 속에 담근 후 통기성 형판 위에 다시 모아 만든 섬유질 물질의 얇은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종이가 되기 위해서는 섬유의 섬유소 사이에 수소 결합물이 형성되도록 해야하며 여기에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이런 공정을 거치고 난 후 물에 젖거나 이를 다시 손질해도 원래의 특성을 유지하는 내구성 있는 특징을 갖게 된다.

종이는 여러 가지 상이한 많은 섬유가 사용되어 왔고 종이 제조 공정이 변하는 단계마다 많은 변종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그 제조공정만큼이나 많은 형태의 종이가 출현하게되었다. 두가지의 주요 제지기술, 즉 동양의 공법과 서양의 공법으로 만든 종이의 시각적 효과는 이들 종이를 만드는 공법들만큼이나 상이하다.

종이는 미술가로 하여금 인간미가 없는 미술에서 탈피하여 자기작품의 창작에 자신의 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종이는 [나무의 섬유질을 가지고 가압성과 응집력에 의하여 제작되는데, 그 과정이 펠팅(felting)기법과 유사한 까닭에 양모와 함께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섬유와 함께 오브제로 압축시켜서 만들기도 한다. 또는 몰드(mold)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염료로 염색하거나 그림(painting)을 그리는 등의 그 표현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3 .금 속(Metal)

공예와 공업에 사용되는 주요한 금속재료는 철이 포함된 주철금속과 포함되지 않는 비철금속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비철금속이 사용되고 그 이외의 약간의 철금속, 그리고 각종 금 속의 특수가공물과 효용가치가 없어진 재료들이 포함된다.

합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속은 용도에 따라 적절히 가공하면 미적인 효과와 기능적인 좋은 성질을 보장할 수 있다.

섬유예술에 있어서 가는 철사와 줄들은 달근질이나 용접용으로서가 아닌 실이나 판금(press slat)의 용도로써 사용되며, 텍스타일 기법에 적용되고 또 사용에 적당한 재료로는 금, 은, 청동, 황동, 알루미늄 등이 있다.

동선, 은선 등은 섬유와 함께 혹은 금속선만의 섬유작품에 널리 쓰여지고 있다.

가. 금, 은

금은 찬란한 금색광택을 지니고 있으며 색이 변치 않고, 다른 금속과 합금을 만들기도 쉬우며 전기도금이 가능하다.⁸⁾ 금은 그 귀중성 때문에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금속이며 아름다운 색과 광택을 가져 귀금속으로서 애용되고, 특히 내구성(耐久性)이 훌륭하다

금의 이러한 특질 때문에 가는 선이나 얇은 판으로도 늘일 수 있고 극히 정밀한 세공까지도 할 수 있다.⁹⁾ 가느다란 금사(金絲)는 세밀한 조직이나 니팅(Knitting)과 크로셰(Crochet)와 같은 기법에 좋은 재료이다.

순은(純銀)은 원래의 상태가 매우 부드럽고 폼핑처리¹⁰⁾를 최소한으로 해도 복잡한 운동을 하는 기법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니팅(Knitting), 크로셰(Crochet), 땀기(Braiding), 레이스 뜨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 은은 물리적 특질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공정에도 서로 공통점이 많다.

나. 구 리

구리의 80%는 순동으로서 주로 전기 공업에 사용된다. 구리 합금 중에는 황동과 청동이 주종을 이루며 이러한 합금은 순동과 같아 기계부품, 건축재료, 가구장식, 화폐 등에 널리 사용된다.

구리가 다른 금속과 비교하여 우수한 점은 부식이 잘 되지 않고 아름다운 색을 지니며 전연성(展延性)이 좋아 유연하고 가공하기 쉽다는 것이다. 순금속(純金屬)인 동사(銅絲)는 24K만큼 순용성이 좋아 직조를 비롯하여 니팅, 크로셰, 땀기등 거의 모든 기법에 이상적이다.

다. 알루미늄

대단히 가볍고 청결하며 내구성이 높은 알루미늄은 근대기술이 낳은 금속재료의 하나로서 오늘날에는 가장 대표적인 경금속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사이트 광석에서 정련, 제조되며 표면은 잘 연마한 것은 조명기구의 반사경 등에 쓰인다.

대기 중에서 표면이 산소 등과 화합하여 더이상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는 단단하고 치밀한 산화피막을 형성하는데 이것 때문에 알루미늄은 잘 부식되지 않는 내식성을 갖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광택으로 현대적인 이미지의 효과를 보이는 알루미늄은 가볍고

8) 임연웅 편저, 「디자인 재료학」 (서울:미진사,1988), p.33.

9) 허버트 리드 저, 정시화 역 「디자인론」 (서울 미진사, 1979), p.106.

10) Arline M. Fisch, op cit, p.40.

녹이 슬지 않아 외관상 훌륭한 재료로서 건축적 크기의 작품에 많이 도입된다.¹¹⁾

알루미늄 판은 작가의 독창성과 더불어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알루미늄 봉에 코일링(colling)하여 제작한 섬유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라. 철

철은 유연성이 있고 가열하면 빨갛게 변하며 철사는 굵기에 따라 변화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가는 철사는 섬세하고 유연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철을 가공한 형태로는 철봉, 철망, 철근, 앵글, 못, 수도관 등이 있으며 강도가 커서 건축이나 골재, 받침대 등의 지지재료로 응용되고 있다. 또한 철사는 다른 섬유재료보다도 강한 힘과 폭넓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굵기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순도(純度)가 높은 철은 동이나 알루미늄 보다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제조할 뿐이며, 보통 철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강(steel)을 말하는데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강도와 경도가 커진다.

마. 광섬유(optical fiber)

광섬유는 전자 기술과 빛의 기술이 이룩한 광전자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오늘날 빛을 이용한 첨단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조형예술의 재료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광섬유는 빛을 전달하는 섬유이다.

광섬유의 가늘고 유연한 특성은 섬유예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재료보다 더 다양하고 섬세한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광섬유는 전기를 이용한 빛만이 아니라도 섬유자체가 자연광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가 되며, 또한 섬유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직조가 가능하여 빛을 발(發)하는 소재로서 그 사용영역이 넓다.

광섬유의 응용분야는 공중통신, 전력, 의료, 방송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선전용 간판에서부터 욕실내외,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예술재료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III. 결 론

현대의 섬유예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예술가들의 창조적 통찰력으로 인하여 표현소재의 의미를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순수 조형예술의 한 양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향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섬유만을 매체로 하여 표현되어 왔던 전통에서 탈피하여 60년대를 거치면서 공예에

11) 김명옥, "현대 섬유예술에 있어서의 금속재료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19.

서의 확장된 변모를 나타내면서 2차원의 평면을 넘어 3차원적인 공간형성에 새로운 소재와 의미를 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섬유예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시대에 표현되어진 작품의 소재들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표현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기계문명의 발달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활 속에 자아의식의 욕구와 자기 표현에의 잠재력이 점차 고조되는 현대의 시대적인 상황은 표현형식이나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기존의 상태에서 벗어나 작가의 독자적인 주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섬유예술이 재료에 있어서 표현양식의 다양성과 복합성이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날, 작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섬유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섬유산업의 발달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섬유와의 혼합에서 오는 창작과 표현의 진가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다각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태성, "현대 섬유미술의 동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5.
- 권영구, "현대 종이조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4.
- 유은영, "현대 섬유예술의 표현소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옥, "현대 섬유예술에 있어서의 금속재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임연웅 편저, 「디자인 재료학」, 서울: 미진사, 1988.
- 손순복, "현대 섬유예술의 새로운 표현소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84.
- 허버트 리드 저, 정시화 역, 「디자인론」, 서울: 미진사.
- Arline M .Fisch, op. cit.

「시각디자인학 연구」 논문집

1. 논문목적

서울비주얼아티스트비엔날레협회의 시각디자인학회 연구논문집 「시각디자인학 연구」는 학문적 활동을 도모하고 시각디자인의 현대화및 예술문화와 디자인 세계화를 위한 목적에서 시각디자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투고대상

서울비주얼아티스트비엔날레협회 정회원

3. 논문내용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논문및 사례연구

4. 논문규격

원고작성은 한글 또는 영문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원고 분량은 본문활자 10.5 포인트를 기준으로 A4 (210×297mm) 15매 이내로 좌우여백 3cm, 상하여백 4cm로 한다.

5. 제출절차

원고는 논문규격에 맞게 작성해서 인쇄원고의 2부 및 디스켓(사용프로그램 필히 명기)을 제출한다. 논문제출시기는 본협회가 정한 접수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지 논문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6. 논문심의

본협회에서 위촉된 논문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7. 논문게재료

논문이 게재 확정된경우 논문심의료및 논문집인쇄료를 협의회에 납부해야 한다.

학회지 논문 신청서

성 명		연 령	
직 장		직 위	
연 락 처		전 화	
주요약력			
논문제목			
분 량			
논문내용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비주얼아티스트비엔날레협의회 시각디자인학회

시각디자인학연구

1996년 12월 (제1호)

인 쇄 1996년 12월 16일
발 행 1996년 12월 16일
발행인 봉 상 균
발행처 서울비주얼아티스트비엔날레협의회 시각디자인학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9-33
(TEL : 938-5049/FAX : 938-5049)
